

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나무가 닿아 있는 지점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았네. 풀은 마른 풀과 다른 나뭇가지들을 그리모아 캐비지야자나무 밑동에 불을 질렀고, 얼마 있다가 나무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쓰러졌지. 또한 불은 야자 순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처럼 단단하고 가시돋친 길쭉한 잎을 벗겨내는 데도 쓸모가 있었어. 풀과 비르지니는 그 야자 순을 일부는 생으로 먹고, 나머지는 잿불로 덮어 구워 먹었는데, 두 가지가 다 맛있다고 생각했지. 두 아이는 아침에 자신들이 했던 실행을 떠올리면서, 벽차 오르는 기쁜 심정으로 이 조출한 식사를 했네. 허나 그 기쁨은 두 사람에게 충분히 짐작되었던 바와 같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바람에 두 엄마에게 생겨났을 근심으로 인해 어지러워지고 말았어. 비르지니는 몇 번이고 이 얘기를 다시 꺼냈고, 그러는 동안 기력을 회복했다고 느낀 풀은 비르지니에게 두 분을 안심시키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네.

막상 식사를 다 하고 나자 두 아이는 적잖이 당황했다네. 집까지 다시 길을 안내해줄 사람이 이제 없었으니 말이야. 풀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비르지니에게 말했네.

“우리 오두막은 정오에 해가 떠있는 쪽에 있어. 그러니 우리는 오늘 아침처럼 저기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이는 산을 넘어야 해. 어서, 우리 동생, 걸어가 보자.”